

사회

여름 휴가철 해양레저 인구 증가

인명구조 장비는 태부족

전남·북 파출소 96곳중 순찰정 등 보유 28% 불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양 레저 인구가 늘고 있지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구조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목포·여수·완도·군산해양경찰 산하 파출소와 출장소 96곳 가운데 순찰정·고속 제트보트·수상 오토바이 등 해상 인명 구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28.1%(2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는 모두 66곳의 해수욕장이 피서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전남·북 4곳의 해경이 보유한 구조장비는 순찰정 19대와 고속 제트보트·수상 오토바이 32대 등 모두 51대다.

더욱이 이들 구조장비 대부분은 파출소에 집중돼 있으며 구조 장비를 갖추지 못한 출장소가 관리하는 소규모 도서 등 취약지역 해안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장비 가동 지연으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인력 부족도 문제다. 4곳의 해경 전체인력은 모두 1848명이며 이중 파출소·출장소 근무인력은 500명이다. 파출소와 출장소가 96곳인 점을 감안하면, 한 곳에서 5.2명이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경은 휴가철 일부 지역에 임시 해

양경찰서를 설치, 내근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해경은 또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 민간자율 구조선박팀과 민간구조단체 등과 협업체 구축을 통해 부족한 장비를 보충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난을 겪고 있는 해경이 이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협업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가 태부족한 실정이지만,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지역을 대상으로 내근 인력과 장비를 집중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광주 고3 여름방학 수업한다

시교육청, 수능 변별력 하락 우려 논술 등 보충

실력향상 우선...정규시간의 수업 금지 방침 바꿔

정규시간 외 수업을 엄격히 금지해 온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중 고3 대상 특별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교육부의 난이도 하향 방침으로 인해 수능능력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져 논술비중이 커진 데다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 결과 광주 학생들의 성적이 예전만 못한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일간제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이번 여름방학에 논술과 국사, 물리 등 소수 선택교과에 대한 특별 보충수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술교실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8개 권역별로 1회 4시간씩, 모두 5차례 진행한다. 특별 보충학습은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5개 권역별로 1회 2시간씩 모두 10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지도 교과는 국사, 물리2, 화학2, 생물2, 지구과학2 등 5개 교과다.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3차례

에 걸쳐 논술은 667명, 선택과목은 263명이 신청했으며, 40여개 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뒤늦은 행정으로 신청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다 특정 학교에만 몰리는 등 수혜 폭도 극히 제한적이다.

46개 일반제 고교 중 8곳은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신청자가 1명에 불과한 학교 등 10명이 채 되지 않는 학교도 16곳에 달했다. 또 굳이 수업장소를 옮길 필요가 없는 10개 거점 학교 재학생들이 30~50명을 차지했다.

광주의 한 고교 진학담당 교사는 "정규교과 외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교육청이 학생들의 수능성적 저하가 우려되자 뒤늦게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같다"며 "이제라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비오는 초복(初伏) 대기불안정으로 낮 동안에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Includes a table for sea conditions (바다) and a daily weather summary table.



'통일골든벨' 누가 올릴까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학생들이 정답을 적은 종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6·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수시모집 전략 수립 설명회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1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2012 대입수시모집 전략 수립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병기 대교협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올해 대입수시모집 경향과 이에 맞춘 진학전략을 소개한다. 참가대상은 진학지도 교사, 학부모, 학생 등으로, 참가비는 무

료다. 시 교육청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가 8월1일부터 시작되는 등 수시전형이 본격화함에 따라 수험생·학부모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수시모집 선발인원은 올해 총 모집 인원 38만2773명의 62.1%인 23만7681명이다. 41개 국·공립대가 4만8445명, 155개 사립대가 18만9236명을 뽑는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북 이달 하순까지 많은 비

북태평양고기압 영향 무더위도

광주와 전남·북지역에는 이달 하순까지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1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이달 하순 광주와 전남·북은 저기압의 영향과 대기 불안정에 따른 집중호우로 평년(56~82mm)보다 강수량이 많겠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도 많겠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8월 상순에는 평균 기온이 평년(26~27도)보다 높겠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평년(47~94mm)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하순에도 평년(26~27도)보다 무덥고 지역에 따라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겠으나 강수량은 평년(69~109mm)과 비슷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Features a knight on a horse logo, contact information for Seoul, Suncheon, and Mokpo branches, and promotional text about quality and price.

Advertisement for '칠만표 방수제' (Chilman Brand Waterproofing). Includes the slogan '대한민국대표방수제' (Korea's representative waterproofing agent), product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hilman Co., Ltd.

Advertisement for '편백나무' (Pine) furniture. Features a forest scene, product images of beds and wardrob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OKNWOOD.